주님 봉헌 축일 2014 년 2 월 2 일 (가해)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2 월 5 일부터)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어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말라 3,1-4**

화답송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서 **히브 2,14-1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음 **루카 2,22-40**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 월 2 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2 월 9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2 월 16 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2 월 23 일	전 니콜	김 헬레나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 월 26 일	$ 330.00	_	$360.00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매일 미사책: 1 년치 권당 $ 40
2014 년도 매일미사책값($40/권)을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오는 2 월 5 일 (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 특히 사정상 주일미사를 참례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평일미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미사 후
오는 2 월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7 시 30 분 저녁미사 후에 한국어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의 수요일: 3 월 5 일 (수)
미사: 오전 8 시. 재의 수요일 전례예식: 5 시 (영어)

성령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8 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하오니, 기도회 단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동 체 소 식

설날맞이 공동체 행사 : 2/5(수) '저녁 7 시 30 분미사' 후
한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한국공동체에서 첫 한국어 저녁미사 후 친교실에서 저녁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사도 참석하시고 함께 친교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성체조배: 2/12 (수) '저녁 7 시 30 분 미사' 후
첫 한국어'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이 2 월 둘째 수요일인 2 월 12 일 저녁미사 후 에 있습니다.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한인 공동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매주 있을 예정입니다..
기간: 2014 년도 1 월 첫째주일 부터 4 월 부활절까지
주제: 가톨릭 교회의 핵심교리. 교제: **'하느님을 향하여' (지은이: 최기산)**
내용: 매 주일미사후 친교실에서 15 분가량 교재를 구역별로 모여서 읽음 (셋째주일은 소구역 공동체 모임).
평가 및 포상: **부활절 퀴즈대회**후 신부님께서 포상.

사물놀이 동우회
한인공동체 사물놀이 동우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우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 니콜라스 평협회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세금보고 영수증
2013 년도 세금보고를 위한 'Church Donation Receipt'이 필요한 신 분은 이 그레이스 자매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기도부탁드립니다.
질병 또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대학 여의도 성모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서울 여의오 성모병원에서 성당 교우들을 위한 검진 추천서가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으신분은, 추천서를 수령하시고, 주임신부님의 사인을 받으신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 신청문의:한인공동체 임원(총구역장).
검진예약/상담 기타 상세정보: 1661-8899 (서울).
검진비:40 만원(A option), 50 만원(B option)
홈페이지: www.cmcsungmo.or.kr/health

말씀의 이삭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김승월 프란치스코| 시그니스 서울 회장

어머니는 20년 만에 성모님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모님이라고 생각하는 한 수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녀님을 뵙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는 "성모님!"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웬 성모님?' 놀라서 난처해하는 제게 수녀님은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수녀님을 성모님이라고도 불러요." 어머니는 한글을 깨친 정도의 교육밖에 받질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성모님과 수녀님은 구별할 줄 알 터인데 그러십니다.

어머니가 수녀님을 자꾸만 성모님이라 부르셔서 저는 "성모님이 아니고, 수녀님이세요."라고 고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재차 "그분은 성모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녹음기 틀듯 '그때 이야기'를 또 들려 주십니다.

20여 년 전 일입니다. 어머니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리 선생님이 바로 그 수녀님입니다. 교리 공부하던 그즈음 어느 날, 어머니는 손녀에게 닭튀김을 해주다가 그만 펄펄 끓는 기름 솥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뜨거운 기름에 손을 데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화상의 고통을 심하게 겪던 어느날 밤, 어머니 꿈속에 수녀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수녀님은 어머니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는데, 이튿날 어머니 손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그분을 성모님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병자영성체를 하십니다. 하루는 봉성체 봉사하러 온 자매님에게 그 수녀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바쁜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해 이웃 자매님에게 부탁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가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하게 사는 줄로만 아십니다. 저는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녀님 보고 싶다는 말씀을 왜 제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듯 말씀드리면서도 저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세세하게 돌봐드리지 못했을까?' 서둘러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수녀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수녀님을 만난 날, 어머니는 살아서 꼭만나야 할 분을 만난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소원을 좀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모처럼 무슨 부탁이라도 하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성당에서 가르쳐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생각이 복잡한 저는 피정에서조차 하느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어머니는 주님 뵙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신듯 합니다. 수녀님을 성모님이라고 그리 믿고 살아오신 어머님을 위하여,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루카 18,17)

-서울주보에서-